

唯物論批評의 根據(一)

李灌鎔

前言=일전부터 본보에 掲載되어오든 裴相河君의『非唯物論的 哲學觀』이란 論文을 읽으면 唯物論이 얼마쯤 根據업는 攻擊-이란 것보다 誹謗을 바뒀다. 『流行思潮』·『大衆的』·『公利的唯物論者』等 文句를 羅列하여 그 論文에 보이는 것은 嚴格한 學究的 態度나 理論 鬪爭의 情神이 아니요, 單純히 皮肉의 □□뻐게 아모것도 업다. 나는 學者의 態度가 이래서는 조차 안타는 것을 생각할 쟈 唯物論이 맞는 學究的 攻擊이 이러케 紹介되어서는 唯物論에게도 不利하거니와 反唯物論 陣營에도 □□이 別로 업슬 것을 생각지 아니치 못하 였다. 그러나 唯物論批評의 根據를 여기 掲載하는 動機는 결코 裴相河君의 論文을 反駁함에 잇지 아는 것은 讀者 諸位가 스스로 쟈다르려니와 나는 그 와 同時에 唯物論의 科學的 根據까지 紹介하고자 한다. 勿論 『紹介』뿐이요, 내 個人의 見解가 別로 석기지 안는 것은 여기 말할 必要도 업스며, 材料蒐集에 대하여도 參考書가 한두 가지가 아님으로 여기 그 명□을 一一히 羅列 할 必要가 업슬 줄 밋는다.

唯物論의 分類

獨逸 哲學者 『오스발트 □페』는 唯物論을 다음과 가티 分類한다.

(甲)實踐的 唯物論

(乙)理論的 唯物論

(가)規制的 原理인 唯物論

(나)形而上學的 唯物論

(一)二元論的 唯物論

(二)單元論的 唯物論

(1)上等的 唯物論

(2)屬性的 唯物論

(3)因果的 唯物論

여기 實踐的 唯物論이란 것은 한 哲學的 見解란 것보다 차라리 한 實踐 道德的 當爲論으로 봄이 그 本位에 갓가우니 즉 人生의 目的은 物質的 快樂에 잇다는 主張이다. 이러한 唯物論보다도 도리혀 理論的 唯物論 즉 『現實世界的 究竟的 本質은 다만 物質뿐이요 아모것도 아니다』라는 哲學的 見解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요, 또 理論的 唯物論 中에도 이른바 規制的 唯物論이라는 것은 一定한 哲學的 思想의 內用을 가진 主張이 아니요, 다만 한 方法論으로서만 存立하고 잇을 性質임으로 이에 對하여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必要가 업슬 줄 밋는다. 무슨 學問的 研究 乃至 思索이던지 『實在의 唯一한 本質은 物質이다』라는 規制的 原理가 이것이니 『프리드리히 랑게』以後로 現代의 心理學者와 生理學者 中 이러한 態度로 研究에 對하는 者가 적지 안타. 우리가 特히 생각하고 심흔 것은 形而上學的 唯物論이요 그 가운데에 잇서서도 二個 種類의 物質을 認定하는 二元論的 唯物論은 重要히 取扱하지 안꼈다. 그럼으로 우리가 特히 생각해 보고 심흔 것은 屬性的 及 因果的 唯物論이다. 相對的 唯物論이란것은 情神과 物質이 그 本質에 잇서서 相等하다는 主張이요, 屬性的 唯物論이란 것은 情神을 物質의 한 屬性으로보는 見解이며 因果的 唯物論이란 것은 物質이 原因이 되고 情神이 그 結果인 것 처럼 觀察하는 學說이다.